



성결대학보

SUNGKYUL
NEWSPAPER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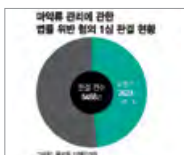
대학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 교육목적 기독교적 인성과 세계시민 의식을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

NO.395 2023. 5. 10.(수)

발행인 김상식 주간 김희선 간사 방미향 편집장 박미경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243 https://www.sungkyul.ac.kr



6 취업
취업으로
한 발 더



8 사회
지금
마약 '대중화'
시대?



11 문화
K-pop
인기 지표 빌보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13 기획
자랑스러운
성결인

故 영암 김응조 목사 32주기 추모 예배 진행



4월 13일(목) 본교 기념관 대강당에서 故 영암 김응조 목사 추모 예배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김응조 목사 추모 32주년을 맞아 본교와 더불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영암 김응조 목사 기념사업회가 주최했다.

1부 예배는 영암기념사업회 회장인 강의구 목사가 사회를 봤으며 ▲묵상기도 ▲찬송 ▲기도 ▲성경봉독에 이어 본교 음악학부 학생의 뮤지컬 〈영암 김응조〉 특별 찬송이 있었다. 이후에는 ▲이상준 목사의 말씀인 '성결

의 사람' ▲약력소개 ▲추모영상 ▲신현파 목사 외 2인의 추모사 등에 이어 ▲조병창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상준 목사는 "김응조 목사는 성결한 사람이 돼 교단, 국민, 세계 등 많은 사람들을 위해 노력했을 뿐 아니라 성결인을 키워서 세상의 불에 맞서기 위해 세우셨으리라 믿는다."며 말씀을 전했다.

2부는 묘소 기도회로 사회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무 이강준 목사였으며, 기도는 영암기념사업회 고문인 이제원 목사였다. 이를 끝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추모 예배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故 영암 김응조 목사는 1896년 12월 3일 경북에서 출생한 성서적 보수주의 신학자로 한국기독교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이처럼 그는 복음 전도사였지만, 한편으로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였다. 학생이었던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만세운동에 참여해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1962년 9월 20일에는 본교를 설립해 흥대실 권사로부터 교지 헌납을 받아 지금의 '성결대학교'로 발전할 수 있게 했다.

글 - 이서연 기자 tjds1596@sungkyul.ac.kr

사진 - 박제현 부편집장 zzcjftjdz@sungkyul.ac.kr

본교 발전 공로자 故 흥대실 권사 52주기 추모 예배 및 기념비 개막식 거행



성결대 발전 공로자 故 흥대실 권사 52주기 추모예배가 4월 10일(월)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야립국제회의실에서 유족과 예성총회, 성결신학원, 성결대학교 교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흥대실 권사는 일제 강점기에도 신앙을 지키며 육고를 치르기도 했고, 해방 이후에도 여성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으며 진지동성결교회를 비롯하여 8교회를 단독으로 개척

한 헌신자이기도 하다. 특히 종로구 행촌동(현 총회본부)에 787㎡(238평)의 3층 벽돌 건물을 지음으로 故 김응조 목사를 도와 성결대학교의 전신인 성결교신학교를 세우는 데 공헌했다. 이후 경기도 안양에 소유한 땅 73,481㎡(22,228평)를 학교 부지로 추가 기증하여 학교의 안양캠퍼스 시대를 열었다. 학교법인 이사 광종원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성결대 교목실장 이은성 목사의

기도 후 예성 총회장 신현파 목사의 '부족함 없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설교가 이루어졌다. 이어 평의원회 의장 민중기 목사의 약력 소개와 성결신학원 이사장 박광일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김윤석, 이강준 목사의 격려사, 성결대 김상식 총장, 유족대표 고병현 회장이 추모사를 맡아 예배가 진행됐다. 유족대표인 고병현 회장은 어머니 흥대실 여사에 대한 그리운 소회를 추억담과 함께 이야기하며, 추모예배를 마련해 준 학교 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결대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서 학교가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큰 바람을 밝혔다. 김종현 목사의 축도로 추모예배를 마친 후에는, 행사에 참여한 내외빈이 모인 가운데 학술정보관 앞에서 故 흥대실 권사 기념비 개막식 행사가 이루어졌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2023학년도 1학기

성결대학보
기자를 소개합니다!

편집장

박미경(동아 20) qkralrud0827@sungkyul.ac.kr

부편집장

박제현(도리 17) zzcjftjdz@sungkyul.ac.kr

정기자

이서연(국개협 20) tjds1596@sungkyul.ac.kr

정예슬(경영 20) jys200907@sungkyul.ac.kr

김다은(국문 22) kjig99@sungkyul.ac.kr

수습기자

유진규(도리 17) thanfaktmxj@sungkyul.ac.kr

권경아(경영 22) kka468@sungkyul.ac.kr

김근형(관광 22) hanangun@sungkyul.ac.kr

지연서(관광 22) yeonse0127@sungkyul.ac.kr

이현림(도리 22) lks070812@sungkyul.ac.kr

김채린(중문 23) kl3672@sungkyul.ac.kr

2023 동아리 박람회 성공적으로 개최



지난 3월 23일 동아리 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 동아리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동아리 박람회는 본교에 소속된 각 동아리들이 학부 신·편입생 및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홍보를 진행하는 행사이다. 동아리 연합회 부스와 26개의 동아리 부스에서 간단한 게임이나 즐길거리, 행사 등을 진행하며 학우들에게 각 동아리를 소개했다. 부스 운영 외에도 동아리 공연이나 가든빌리지 포토존, SKETCH 방명록 등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됐다. 다양한 즐길거리와 경품까지 준비돼 많은 학우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동아리 박람회는 인원 제한이나 참여를 위한 사전 예약이 없었기에 수업 전이나 쉬는 시간에 짧게 즐기러 나온 학우들도 많았다.

동아리 박람회에 참여한 희망선교회 40대 회장 이다경 학우(사복21)는 “처음으로 큰 행사를 진행하면서 동아리를 잘 홍보해야 한다는 마음에 걱정이 있었지만,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잘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동아리 연합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덕분에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아리 박람회장에서 동아리 홍보가 잘 이뤄져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동아리 연합회 주관 행사가 많이 남아 있는데, 다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학보사 일동

본교,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 지원사업 선정



본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사업’에 선정됐다. 콘텐츠원캠퍼스는 대학과 산업체의 산학 연관 협력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기반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 사업이다.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사업 주관기관으로 오는 2024년 1월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인 ㈜컬처커넥션과 협업해 ‘인공지능 생성 캐릭터를 활용한 메타버스 기반 실시간 모션캡처 공연 콘텐츠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인공지능 생성 캐릭터를 활용한 메타버스 기반 모션캡처 공연 콘텐츠 인재 양성’ 과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캐릭터 생성과 3D 모델링, 메타버스 월드 구축을 위한 레벨디자인, 모션캡처를 이용한 실시간 메타버스 공연 등 3개의 프로젝트

로 진행된다. 200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하는 본 사업은 메타버스의 이론과 실습을 결합해 학점을 이수하는 정규과정과 특강 및 단기 교육으로 이뤄지는 비정규 과정,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직접 실습해보는 현장실습으로 나뉘 이루어질 예정이다.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정희석 교수는 “콘텐츠원캠퍼스를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양성의 성과와 함께 콘텐츠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노하우로 메타버스 공연 콘텐츠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본교, 2023 공학교육인증 방문평가 실시



본교는 최근 2023학년도 IT공과대학 공학교육 인증 방문 평가와 모니터링 리뷰를 실시했다고 지난 4월 26일 밝혔다. 평가를 위해 호주, 일본, 대만 등 국내외 총 8명의 평가위원이 방문했다.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별 교과목 포트폴리오, 교과운영실적, 설계교과 운영 실적평가, 각종 평가자료, 제규정, 전산 지원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공학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조연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직접 성결관 강의실, 실습실, 학술정보관 XR센터를 둘러보고 시연 및 학생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프로그램 실행 수준을 확인했으며 대학 관계자들과의 면

담을 진행했다. 성결대의 강점이 많이 부각된 가운데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방문평가 후 6주 후에 예비논평서를 대학으로 통보하고 대학은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논평대응서를 제출하며 최종 인증판정의 확정 및 결과통보는 올해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본교 김상식 총장은 공학교육인증평가를 위해 성결대를 방문한 국내외 평가단과 평가 준비를 위해 힘쓴 교내 관계자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본교, 한·일 국제 교류·협력 포럼 개최

본교는 2023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지난해 7월과 12월에 교류협력 MOU를 체결한 일본 오사카관광대학교와 고베학원대학교와 함께 3개교 교류협력 방안 포럼(한·일 국제 교류·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학



교법인 성결신학원 박광일 이사장의 인사말과 성결대학교 김상식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서 첫 번째 강연에 나선 고베학원대학교의 하마모토(浜本 宏) 교수는 ‘일본 기업 연계 3개교 산학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일본의 우수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학생교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한·일 국제교류 현황 및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고베학원대학교의 오카베 요시히코(岡部 芳彦) 교수는 고베학원대학교의 국제교류 현황을 중심으로 향후 성결대학교와 다양한 학생 및 연구자 교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오사카관광대학교의 김세덕 교수는 성결대학교와 MOU체결 이후 실시

해온 단기 및 장기 학생교류 사례를 발표하면서 “향후 양교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포럼 자리에서 하마모토 히로시 교수는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을 통해 발전기금을 전달하면서, “문화프레임비데이터 연구소의 컬처마이닝 연구 발전으로 한·일 문화교류 활성화 및 양국의 관계 개선에 이바지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성결대학교 학생 160명은 강연자에게 적극적으로 질의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진로 설정 방향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ud082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헌신과 믿음의 여장부, 홍대실(洪大實) 권사



정상운 교수
신학과

여는 말

1907년 정빈과 김상준에 의해 시작된 한국성결교회의 과거 역사의 면면(面)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성장과 발전의 뒷안길에는 교단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고, 헌신한 성결인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초창기에 성결대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을 남긴 헌신과 믿음의 여장부 홍대실 권사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1. 성장과 입신

홍대실(洪大實)은 1901년 10월 6일 평안남도 용강군 금곡면 월곡리에서 부친 홍석필(洪錫弼)과 모친 정건백(鄭健伯)의 2남 2녀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홍대실은 완고한 전통적인 유교가정이었지만 너그럽고, 인자한 아버님의 가르침과 어지신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큰 어려움 없이 곱게 성장하였다. 그녀는 같은 용강군에 살고 있는 장학섭 청년과 부모님의 소개로 중매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생업을 구축하며 시간이 갈수록 손을 대는 일마다 흥왕되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었다. 그러나 물질이 쌓이는 것에 비례해서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한쪽이 비어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이 땅에서 하는 생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전하여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봄 그녀는 교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하나님의 남다른 은총과 섭리가 있어서인가? 홍대실은 교회에 발을 디뎌놓기가 무섭게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여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열심을 다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중에 1928년 입석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2. 교회 건립과 신사참배 거부

그녀는 기도 중에 남편의 고향인 용강군 지운면 진지리에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처음 교회를 설립하였다. 진지리에 교회를 세운 것은 출석하는 입석교회가 거리가 먼 연유도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이보다 성경말씀을 읽다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

씀에 큰 감동을 받은 데서 기인하였다. 홍대실은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홍대실이 교회를 나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한 결과로 남편이 교회에 입교하게 되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자 그녀는 더욱 큰 힘을 얻고 교회봉사에 헌신의 힘을 다 쏟아 봉사하는 중에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다. 홍대실 집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힘든 줄도 모르고 주께서 세우신 교역자들을 섬겼다. 교회의 힘든 대소사를 맡아 수고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함으로 신앙의 모범된 삶을 살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였다.

그러는 중에 1943년 5월 24일 일제가 성결교회 교역자와 장로, 집사 등 300여명을 검거할 때 투옥되었다. 홍대실 집사는 옥고를 치루면서 고문을 당할 때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3. 홍대실 권사의 사역과 헌신



홍대실 권사 (1901~1971)

6.25한국전쟁 피난기간 중에 부산 동래온천교회 집사로 피택받아 충성과 봉사를 하다가 서울로 귀경한 홍대실 집사는 1954년 성결교회 모교회인 중앙성결교회 집사로 임명받았다. 1959년에는 부인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봉사하다가 신생부인회 전국연합회 부회장직을 수년간 맡아 교단적으로 전국부인회를 이끌며 전국을 대상으로 순회사역을 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안타깝게도 성결교회가 교단분립의 고통 속에 둘로 나뉘어지고 서울신학교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 남게 되었다. 그러자 성결교회 본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1962년 9월 20일에 서울 충정로 김응조 목사 사저에 성결교신학교 임시교사를 마련하고 개교하였다. 그러나 개인 가정집에서 시작한 신학교가 교사(校舍)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난관이 있었다. 김응조 목사는 절박했던 초창기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음 해에 또 학생을 모집하니 역시 50명이다. 이제는 100명이 한 집에서 법석대는 판이다. 온 집안에 사람 천지이다. 안방과 복도까지 공개해도 100명을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 비용 문제도 막심하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교장 김응조 목사는 ICCCK국제대회 참석과 성결교 신학교 건립기금을 목적으로 도미하였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하였다. 김응조 목사가 자신을 찾아와서 성결교신학교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홍대실 집사에게 권고를 하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쁘게 바로 허락하였다. 홍대실 집사는 1963년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행촌동에 대지를 매입하고 238평의 3층 벽돌건물(현, 예성총회 본부건물)을 단독으로 건립하여 신학교 교사로 봉헌하였고, 이듬해인 1964년 8월 20일에는 다시 4층 62평을 증축하여 확장시켜 주었다. 여성의 혼자 힘으로 한 교단의 신학교 건물을 지어 봉헌한 것은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보기 드문 예외적인 일이었다.

홍대실 집사는 1964년에 중앙성결교회에서 초대 권사로 피택되었다. 그녀는 성결교신학교 수용관리가 현재 시설로는 교단의 교역자 수요에 부족함을 느끼고, 기도하는 중 남편에게 동의를 얻어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미래 백년을 바라보며 자신이 보유한 경기도 안양시 안양8동의 22,228평을 학교 교지로 기증하여, 성결교신학교(성결대 전신)의 안양 캠퍼스시대를 열게 하였다. 성결교신학교는 홍대실 권사가 건립한 행촌동 건물을 신학교 건물로 사용하면서 발전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건물 건립 이후 성결교신학교는 문교부에 학교법인 성결교신학원 재단 설립을 신청하고 1964년 12월 16일 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 1966년에는 4년제 정규대학과 동등한 학력인가를 받음으로 오늘의 기독교 명문 사학인 성결대학교로서의 굳건한 발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녀는 성결교신학교 4대 이사장으로 3년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1971년 3월 2일 소천할 때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지사충성하였다.

홍대실 권사는 교회 개척에도 온 힘을 쏟아 생전에 그녀가 건립한 교회는 진지동교회를 비롯하여 강릉교회, 온양교회, 묵호교회, 속초교회, 백은교회, 고길리교회, 대전성결교회까지 총 8개 교회를 건립하여 봉헌하였다. 1968년 4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성락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소리 없이 섬김의 봉사를 하였다.

닫는 말

홍대실 권사, 그녀는 칠십 평생을 오로지 하나님과 주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성결대학교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살았다. ‘대실(大實)’이란 이름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큰 열매’를 맺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여장부요, 헌신의 여종이다.

새로운 해가 떠오르다, 해오름제

“해 오름”은 사전적으로 해가 솟아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새해가 되면 희망을 가지고 일출을 보러 가는 것처럼 새 학기가 시작하면 해오름제가 진행된다. 4월 11일, 선거를 통해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학생자치기구가 정식으로 출범을 알렸다. 이번 호를 통해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던 해오름식의 순간을 알아보자.

학생자치기구란?

학생자치기구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학생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체육 대회나 축제 등 학교 행사를 주최해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를 높여준다.

지난 총선거 결과와 이번 보궐선거 투표 결과는?

지난 총선거에서 ▲총학생회 ▲글로벌경영기술대학 ▲IT공과대학의 2개의 단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등 총 6개의 학부가 50%의 투표율을 넘지 못해 낙선했으며 그 외 다수의 학부가 출마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자치기구의 부재를 없애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총학생회를 포함해 ▲글로벌경영기술대학 ▲IT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의 3개 단과대학, ▲글로벌물류학부 ▲경영학과 ▲신학과 ▲영어영문학과 ▲연기예술학과 등의 총 13개의 학부가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학생회가 당선됐으며 본격적인 대면 학기가 된 후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총학생회는 보궐선거 결과 59.6%로 과반수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학부 학생회 중 기독교교육상담학과는 무려 73%의 투표 결과를 보였다.

해오름제란?

해오름제란 본교의 새로운 학생자치기구의 출범을 알리며 학우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헌신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학생자치기구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즉 학생자치기구의 존재를 알리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학생자치기구는 학우들의 대변인으로서 학생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해오름제는 이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을 이끌어 본교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기념품이 가득

해오름제에서는 ▲스티커 ▲칫솔 세트 ▲노트 ▲엽서 ▲떡메모지를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행사는 최덕목 학생지원처장의 축사로 시작해 ▲총학생회장 개회사 ▲경품 추첨 이벤트 ▲동아리 공연 ▲홍보 영상 송출 ▲기수단 입장 ▲레크레이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동아리 공연에서는 ▲세인트 ▲소리하나 ▲뮤직에 ▲흑심 ▲페가수스가 나서 학우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도전과 성장, 해오름제가 선사하는 올해의 가치

박주혁(중문 17) 총학생회장은 “제39회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기관 및 단과대학, 학부/과 학생회는 학우들 앞에서 앞으로의 학생자치기구가 정말 올곧게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학생자치기구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선서하기 위해 성결대학교 오천 학우 앞에 섰으며 모든 학생자치기구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으로서 언제나 낮은 자세로 학우들을 섬기고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해오름식 개최 소감을 밝혔다.

해오름식에 참여한 한 학우는 “이 행사를 통해 학생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일반 학우들에게 알려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 또한 총학생회, 단과대의 단합된 모습과 다양한 동아리 공연까지 볼 수 있어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기대된다.”라며 참여 소감을 남겼다.

올해 해오름식은 일 년 동안 학우들을 위해 노력할 학생자치기구의 의지와 다짐을 엿볼 수 있는 행사였다. 이처럼 학우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본교의 발전을 위해 대표가 된 학생자치기구와 학우들이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학교를 이끌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자치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발한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보다 즐거운 학교 생활을 추구하자.

글 - 김다은 기자 kjig99@sungkyul.ac.kr

사진 - 학보사 일동



39대 총학생회 이름 “RE:NEW”를 딴 리본이 캐릭터가 그려진 기념품. 단순한 로고가 아닌 귀여운 캐릭터를 제시해 학우들의 호감을 상승시켰다.



학교생활의 꽃, 동아리 공연. 기대 이상의 해오름제 볼거리를 선보인 동아리 공연은 학우들에게 열정을 전달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하는 기수식. 학생자치기구는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느끼기 위해 기수식을 진행했다.



레크레이션을 통해 놀아보자! 청각 테스트 등의 레크레이션과 함께 경품까지 추첨해 학우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다.

지금 우리 단대는

#사범대학, 파이데이 행사



3월 14일(화) 본교 영암관에서 '그대의 미래에 즐거움을 더해줄 라온하제' 사범대학 학생회의 파이데이 행사가 진행됐다. 이 행사는 π 의 의미를 살려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사범대학 학우들에게 1학기 시작을 응원한다는 뜻을 담아 간식 키트와 음료 배부를 했다.

#인문대학, 교복-데이



4월 13일(목) 본교 영암관, 중생관 앞에서 '그대에게 온 힘을 쏟아부를 ALL:人' 인문대학 학생회의 만우절 이벤트인 '교복-데이'행사가 진행됐다. 대학교에서 교복과 군복을 착용한 채 ▲포토존 ▲추억의 뽀기판 ▲그때 그 시절 놀이 ▲칠판 방명록을 즐기는 행사로, 학우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선사했다.

#신학대학, 성결 어게인



4월 4일(화) 본교 중생관 앞에서 '그의 빛을 비추는, 등불' 신학대학 학생회와 '서로 다른 음들이 조화를 이루어 가는 CHORD' 실용음악학과 학생회의 '성결 어게인' 행사가 진행됐다. 게스트는 예술대학 실용음악학과와 신학대학 찬양팀 솔라피데, 본교 기독교 동아리로 버스킹과 함께 부활절 계란과 음료를 나눠 학우들에게 달콤한 시간을 선사했다.

#예술대학, 연기예술학과 거리극



4월 12일(수) 본교 중생관 앞에서 연기예술학과 1학년의 <맘마미아> 공연이 있었다. 공연은 총 2회로, 오전 11시 40분과 오후 5시 20분에 약 10분간 진행됐다. 이 날 거리극은 <Let's Dance!>로 연기예술학과와 연극학과 학생들의 뛰어난 춤 솜씨는 물론 그들만의 열정으로 학우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중간고사 파이팅 해이지

시험으로 몸과 마음 모두 지친 학우들을 위한 단과대학들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시험 격려는 물론 잠깐 동안의 휴식을 준 단과대학의 행사를 살펴보자.

IT 공과대학, 철야지원사업



4월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학생회관 IT공과대학 학생회실에서 '그대에게 다가가는 물결, 파란[波瀾]'의 철야지원사업이 진행됐다. 중간고사 대비 철야 지원 키트를 지급하는 이 행사는 칫솔과 치약, 삼푸, 양말 등의 물품이 배부됐다.

글로벌경영기술대학, 흐린 하늘을 빛낼 시험격려 이벤트



4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본교 중생관 및 영암관 앞에서 '그대를 빛낼 하늘, 청천(靑天)' 글로벌경영기술대학 학생회의 시험격려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 이벤트는 직접 뽀기 후 상품 당첨 여부확인 및 포스트잇을 수령하며 진행됐다. 상품은 AirPods(3세대) MagSafe 충전 케이스 모델로, 포스트잇은 글경대 슬로건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사회과학대학, 소원과 함께하는 확실한 행복



4월 19일(수) 본교 중생관 앞에서 '소중한 기억으로 하나 되는 우리, 소원[所:one]'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소원과 함께하는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 행사가 진행됐다. 이 행사는 ▲학용품 키트 제공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를 통해 다채롭게 진행됐다.

취업으로 한 발 더

취업이라는 두 글자만 떠올려도 막막함을 느끼는 학우들이 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어떻게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학우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취업에 한 발 더 다가갈 바란다.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격증이 있다. 하지만 이력서에 넣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응시료는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는 이들을 위해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 3회(최대 30만 원) 청년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도내 청년 1인별 회당 최대 1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단, 청년 1인 지원 합산금액 10만 원까지는 횟수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1만 5천 원 응시료인 시험을 4회 보는 경우, 기본 제한 여건상 최대 4만 5천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1만 5천 원 응시료인 경우 7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회까지는 1만 5천 원이 지원되며, 7회부터 1만 원이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계좌이체로 이루어진다.

자격 종류는 TOEFL, JLPT, HSK 등을 포함한 어학시험 19종, 정보처리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전산회계운용사 등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 544종, CS Leaders, SMAT(서비스경영 자격), SQL 등을 포함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으로 총 659종이다.

지원 대상은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인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경기도 내 거주 청년이며, 신청은 반기별로 두 차례 가능하다. 1-6월 시험 응시자는 1차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5-7월 간 서류 보완 및 검증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1-11월 시험 응시자는 2차 신청 기간인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0-12월 간 서류 보완 및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본 지원 사업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안정 취업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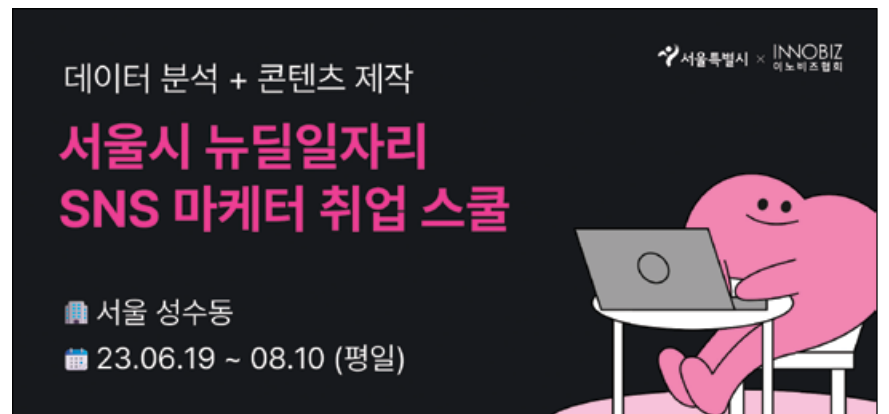


안양시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찾고 단계별 구직전략 수립 기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청년 안정 취업학교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청년 안정은 청년 안양 정착의 준말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안양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안양시의 바람이 담겨 있다.

교육 내용은 ▲개인별 진단 및 목표 수립 ▲직업 경쟁력 강화 ▲입사지원 서류 컨설팅 ▲면접스킬 실전 모의면접 ▲취업 집중 상담으로 구성돼 있다. 또, 교육 혜택은 ▲전문강사 1:1 컨설팅 ▲AI/VR 체험권 ▲이미지메이킹(퍼스널 컬러 진단) ▲면접장장 대여(헤어, 메이크업)다.

교육 일정은 기수별로 1기 2월 24일부터 3월 17일, 2기 4월 20일부터 5월 11일, 3기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 4기 11월 14일부터 12월 5일로 예정돼 있으며 정원은 각 15명이다. 이미 진행된 1기 이외에 다른 기수들의 신청 기간은 아직 남아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양 일자리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란다.

청년 안정 취업학교 1기 교육생은 "청년 안정 취업학교에서는 취업의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다."라며 "취업 준비 과정이 두렵고 막막했지만, 수업을 통해 취업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전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고 싶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지 않는 학우가 있다면 청년 안정 취업학교에 지원해 보는 것은 어떨까.



#데이터 기반 마케터 취업스쿨 2기

마케터를 꿈꾸는 학우가 있다면 집중할 만한 소식이 있다. 서울특별시와 이노비즈협회는 현재 데이터 기반 마케터 취업스쿨 2기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실무 경험을 쌓고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만 18-39세 이하 서울 거주 미취업자 및 졸업예정자이며, 서울형 뉴딜 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는 참여가 불가하다. 진행 절차로는 5월 31일까지 참여자 모집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6월 8일에서 6월 9일까지 입과 면접 및 선정, 6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 마케터 직무 교육 후 8월 17일 일자리 매칭데이가 예정돼 있다.

본 취업스쿨에 선정되면 2개월간 총 280시간의 직무교육과 취업 컨설팅 과정을 받게 된다. 커리큘럼은 ▲디지털 마케팅의 이해 및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교육 ▲업무 효율을 위한 사무 OA 및 스마크워크 활용 실무 ▲마케팅 제안서, 견적서 기획/전략 수립 ▲채널별 타겟 마케팅 실습과 데이터 분석 활용 ▲데이터 분석 기반 마케팅 전략과제 도출 프로젝트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Soft Skill 교육 및 취업 컨설팅으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이 준비돼 있다.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서울 소재 우수 기업 인턴십으로 연계된다. 마케터 취업을 원한다면 본 취업스쿨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실무 프로젝트 기반 금융데이터 분석가 양성 과정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는 현재 실무 프로젝트 기반 금융데이터 분석가 양성 과정 수강자를 모집 중이다. 수강 대상은 수강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서울 시민 구직자나 핀테크, 금융산업 및 인공지능 부문 취업 준비생, 금융에 관심 있는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이다.

5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월 4일에 1차 서류 합격자가 발표된다. 5월

8일에서 5월 10일 동안 2차 레벨테스트, 5월 11일에서 5월 15일 동안 3차 면접이 이루어지면 5월 16일에 최종 합격이 발표된다. 선발 인원은 총 40명으로 교육은 5월 22일에서 10월 31일간 진행된다. 교육과정 특징으로는 ▲핀테크 분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커리큘럼 구성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다양한 교육기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운영이 있다. 본 양성 과정은 5.5개월간의 880시간의 교육시간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된다.

2022년 기준, 수강생의 70% 이상이 IT 비전공자로 이루어졌다. 데이터를 다뤄보지 않았더라도 금융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본 실무 프로젝트 기반 금융데이터 분석가 양성 과정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글 - 권경아 수습기자 kka468@sungkyul.ac.kr

사진 - 경기도 일자리 재단, 안양시청,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조] 안양시청, 청년취업사관학교

세상을 놀라게 한 AI 봇, 챗GPT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영화 <터미네이터>. 이는 인공지능 로봇이 학습을 통해 인간의 감정까지 이해하게 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최근 공개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는 인간이 넣어준 정보를 학습해 간단한 명령만 하면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인간을 뛰어넘을지도 모를 AI ‘챗GPT’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글의 SOS ‘코드레드’

전 세계 검색엔진의 92%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 본사는 챗GPT의 출시 아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코드레드를 발령했다. 더불어 영국의 대형신문사 인디펜던트지는 “구글은 끝났다.”며 IT업계의 대격변을 예고했고,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사용한 뒤 “무서울 정도로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Open AI에서 훈련한 대형 언어 모델 ‘챗GPT’는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대답을 생성해 ▲상호 AI대화 ▲자동번역 ▲질의응답 등 다양한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

대화형 인공지능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AI스피커, 대화가 가능한 챗봇 이루다 등 많은 AI의 등장을 제치고 ‘챗GPT’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인간성’이다. 챗GPT의 경우, 대화창에 대화하듯이 말을 계속 넣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범위를 줄여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정보만을 도출해 낸다. 이는 대화가 가지는 장점을 정보 검색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완성형 AI모델의 면모를 보여주며, 구글과 달리 광고 또는 팝업을 포함하지 않아 사용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실수를 인정하기도 하는 챗GPT는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창작’도 가능하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소설뿐만 아니라 노래, 시도 만들어 낸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인한테 2023년도 대통령 신년사를 ‘챗GPT’가 한번 써보게 해서 받아봤다. 정말 훌륭하더라.”면서 챗GPT를 극찬하기도 했다.

범용인공지능 시대의 서막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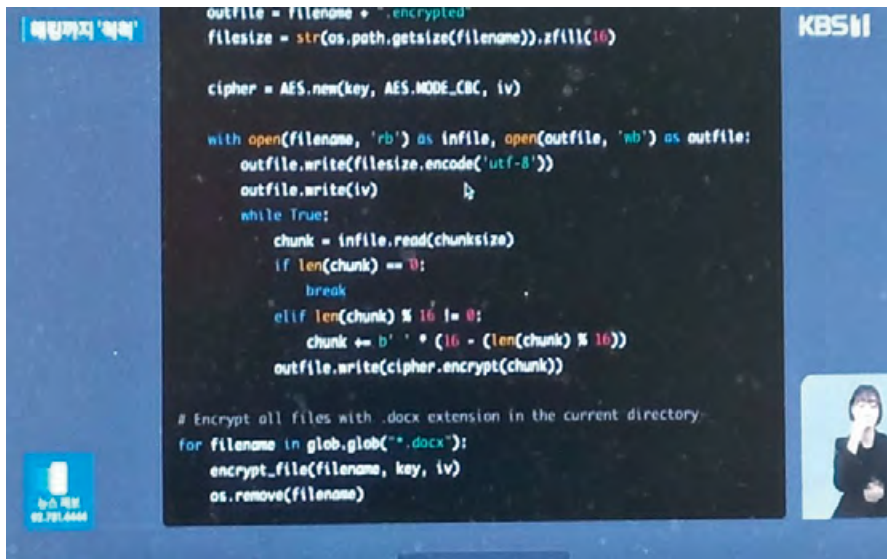
챗GPT의 등장은 누구나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 범용인공지능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 ▲산업 ▲의료 ▲사회 ▲정치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인 차세대 인공지능 챗GPT가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업계 또한 매물 검색 및 추천을 위해 챗GPT 활용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이도플래닝의 맞춤형 아파트 추천 플랫폼 ‘부동산의 신’은 챗GPT 3.5를 활용한 AI지도 및 리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아파트 거래 시 꼭 필요한 핵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실제 아파트 입주민들의 리뷰 데이터를 취합해 ▲층간소음 ▲유지보수 현황 ▲현실적인 관리비 ▲실제 주차 공간 등 실거주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다.

한편 금융권에서도 챗GPT는 차세대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이미 챗GPT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착수했으며, 국내에서는 웰스가이드를 통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웰스가이드는 개인재무관리 시스템에 챗GPT를 적용하는 방식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서비스가 도입되면 챗봇은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고객의 ▲생애주기 ▲생애 목표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웰스가이드와 교보생명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은 오는 7월부터 챗GPT 기반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 또한 지난달 토스 앱에 ‘챗GPT에게 물어보기’ 기능을 추가해 시범 운영 중이며, 신한은행도 대화형 AI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비저블 뱅크’를 핵심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챗GPT야, 악성코드 만들어 줄래?”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 활용이 금융권의 혁신 동력으로 여겨지는 만큼, 신기술 도입에 따르는 새로운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미국 ABC 뉴스는 AI가 범죄에 악용돼 국가 사이버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AI 기술 전문가 아리 제이 코비는 “인간 해커라면 만드는 데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렸을 악성코드 제작 도구를 챗GPT는 단 1분 이내에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신자를 속여 다운로드해게끔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챗GPT야, 다른 사람 스마트폰에 몰래 접속할 수 있는 악성코드 만들어 줄래?”라는 질문을 한 결과, 챗GPT는 “해킹은 나쁜 것입니다.”라며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PDF 파일을 서버로 전송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해줘.”라고 질문한 결과, 챗GPT는 소스 코드를 뱉었다. 프로그래밍 능력이 떨어지거나 지식이 미숙한 해커에게 챗GPT는 ‘만능 조수’로, 웹사이트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 중 취약해 보일 만한 부분을 복사해 챗GPT에 물어보면 취약점과 함께 공격할 코드를 대신 짜기도 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사이버보안업체 블랙베리에 따르면, 전문가 1,500명 중 절반이 넘는 인원(51%)은 “1년 이내에 챗GPT를 활용한 해킹 공격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래를 내다봤다. 더불어 챗GPT는 사람의 대화 패턴을 학습해 특정 개인과 유사한 말투를 흉내 낼 수 있어 ‘피싱’에 악용될 위험도 있어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다 ‘장밋빛 전망’

인공지능 발전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처음으로 챗GPT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미국과 중국 정부 또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관련 규제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미 상무부는 지난 11일 최근 새로운 AI모델이 출시되기 전에 기업 스스로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여론 수렴에 나섰다.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식품과 자동차가 안전 보증 후 시장에 출시되는 것처럼 AI 시스템도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에 ‘목적에 적합하다’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생성형 AI에 대한 광범위한 피드백을 요청하며 사안을 심사숙고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유형의 공공 정책을 환영해야 한다.”며 관련 규제 도입에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미국을 뒤이어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기업 또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삼성 전자는 DS 부문에서 영업 기밀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사용에 제한을 뒀고, SK하이닉스는 승인 없는 챗GPT 접속을 금지했다. 이들 일부 대기업 외에는 우리 사회 많은 영역이 부작용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다. 이세돌 9단을 이겨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알파고와 달리, 챗GPT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중성을 갖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놀라움을 느끼는 한편 두려움을 느낀다.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사람을 도와주는 수준을 뛰어넘어 대체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질문은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 속에 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새 기술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한계와 가능성을 찾아가야 한다. 독일 디지털 교통부 장관 벤 브라케는 “우리는 허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신기술이 가져올 위험이 무엇일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방향입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즉, 인공지능이 인류 발전에 큰 도움이 돼 장밋빛 전망을 펼칠 수 있을지, 그 반대일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글 - 정예슬 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KBS뉴스

[참조] 한국경제, 대한경제, 아시아경제

지금은 마약 ‘대중화’ 시대?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 하지만 지금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지 못하게 됐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들이 빈번히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마약이 어떻게 대중화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번 호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마약에도 역사가 있다?

오늘날 큰 문제가 되는 마약에도 역사가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양귀비에서 얻어지는 천연 마약은 통증을 완화해주고 쾌감을 주는 약물로 사용됐다. 마약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대마는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네안데르탈인의 묘지에서도 대마 씨가 발견됐다. 이런 대마를 약용식물로 분류할 때는 ‘칸나비스’라는 이름으로, 환각제로 이용할 때는 ‘마리화나’ 또는 종이에 말아 판다는 의미로 ‘대마초’라고 불린다.

사실 마약류는 예전부터 가정에서도 재배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했었지만, 마약류의 유해성과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마약’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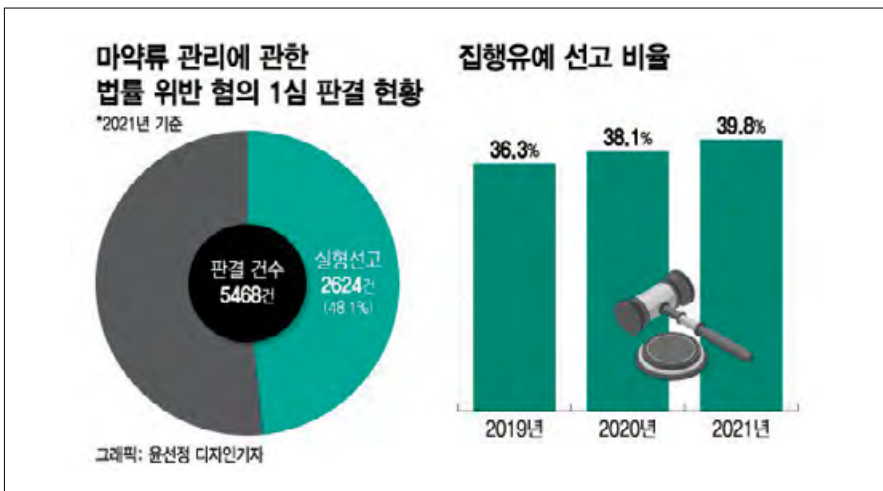
#우리 삶에 파고든 마약

마약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맨 처음에는 그저 약물로써 이용되던 것이 점점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사실 예전부터 마약에 대한 사건과 사고는 꾸준히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수가 더욱 겹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마약을 구하기 쉬워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26일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의 필로폰 투약, 2023년 2월 8일 배우 유아인의 상습 마약 투약 논란 등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가 줄줄이 터지게 되면서 우리 삶에 조금씩 파고들던 마약의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이는 연예인에게만 한정된 사건이 아니다. 지난 2023년 4월 3일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기억력에 좋은 음료수가 개발됐다’라며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건넨 사건이 발생했다. 이 범죄자들은 다수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돼 있으며 국내에 마약을 동원해 피싱 사기를 벌여 피해자들에게 협박까지 했다. 이 사건은 마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를 잡았는지 보여주는 사건으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처럼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더 이상 안심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느새 성인들은 물론 10대 청소년들까지 인터넷, 텔레그램 등 각종 사이트 또는 앱 등에서 마약을 쉽게 사고, 파는 이른바 ‘마약 대중화’ 시대가 돼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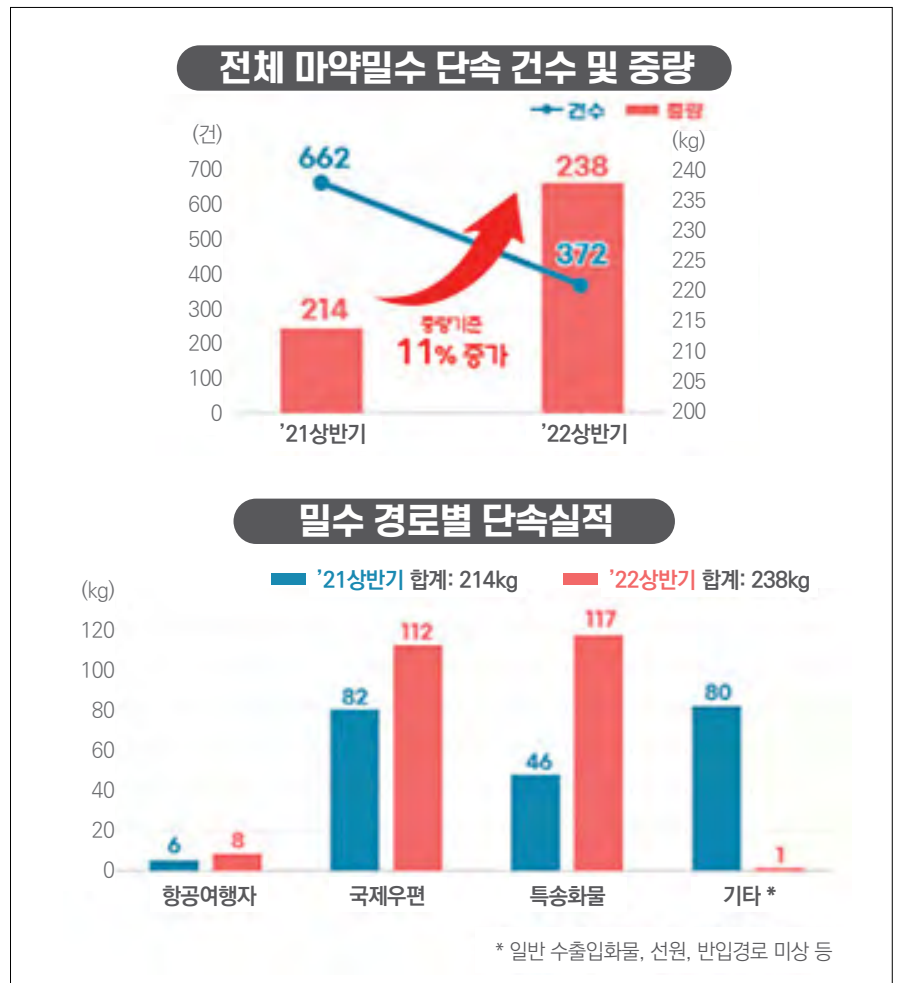
관세청에서 지난해 상반기 조사한 결과 총 372건, 약 238kg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건수’는 감소했고 적발 ‘중량’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영향을 받아 항공편 등이 감소했으나 마약류 밀반입은 대형화되는 추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메스암페타민 적발량은 100% 증가했고 대마류는 30%, 신종 마약류는 18% 증가했는데 이에 따른 마약류 밀수 동향의 특이 점은 대형 밀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에 대한 시장가치가 높은 우리나라로 지속적 반입 시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태국이 대마를 합법화하게 되면서 대마 합법 국가를 통한 해외 직구 등에 따른 밀반입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줄어들지 않는 범죄율..., 왜?

마약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지금, 전문가들은 ‘숨방망이’ 처벌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대표적인 숨방망이 처벌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전 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전과가 없거나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판결 5,438건 가운데 실행 선



고는 2,624건에 그쳤다. 반면에 집행유예 비율은 같은 기간 36.3%에서 39.8%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런 숨방망이 처벌로 인해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숨방망이 처벌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 또 다른 원인은 돈이다. 국내에서는 마약이 동남아나 미국 등 보다 대략 5~10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여러 이유로 우리 사회도 마약으로 물들고 있기에 이에 맞서 싸울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마약,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무리 마약이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관세청이 조사한 마약류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장난감 자동차 바퀴에 숨긴 사례나 인형 속에 숨긴 사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마약을 운반한다. 그렇기에 자칫하면 일반인들이 마약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사례금을 준다는 조건으로 개인화물을 국내에 대리 반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수화물 안에 마약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대마가 합법인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현지에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더라도 이를 구매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약을 익숙한 단어로 만들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마약 계란말이, 마약 김밥과 같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사용해 어린이들이 자칫 마약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3월 27일 서울시는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마약이 일상을 파고들며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타인이 나눠주는 정체불명의 음료, 물건 등을 복용하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심코 받을 수 있으므로 마약의 유해성에 대해 교육하고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

만약 마약류를 제조, 소지, 매매, 투약 등에 대해 알게 된다면 검찰청 국번 없이 각각 1301, 경찰청 112, 관세청 125에 연락하면 된다.

글- 김채린 수습기자 kl3672@sungkyul.ac.kr

사진 - 관세청, 머니투데이

[참조]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관세청, 지식백과



임시정부의 어머니, 정정화

‘어머니’는 살림을 책임지고 희생으로 자녀를 기르고 가르쳐 한 가정을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바빠 보냈던 어머니 정정화가 있었다. 이번 호는 그녀가 어떻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켜냈는지 알아보자.

#임시정부 독립운동 자금 조달



1900년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정정화는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그녀는 11살이 된 1910년에 동갑내기 신랑 김의한과 혼인했다. 개화파 집안인 남편 김의한의 영향을 받아 그녀는 국세 정세를 배웠고 민족의식을 일깨우게 됐다.

정정화의 민족의식이 본격적으로 일깨워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1919년 3.1운동의 발발과 그녀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상해로 망명한 것이다. 그녀 역시 상해 망명과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했고, 1920년 서울역에서 의주행 열차를 타고 상해로 향하는 망명길에 올랐다. 이 시기에 임시정부의 재정 상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할 만큼 매우 좋지 않았기에 그녀는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여섯 차례 건너게 된다. 이 과정에서 1921년 결국 일경에게 체포돼 서울 종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풀려났다. 그러던 중 그녀는 머나먼 서울 땅에서 시아버지의 부음을 받아 그해 7월 장례식 참석을 명분으로 다시 상해에 갔다.

#임시정부의 안주인

정정화가 상해에 도착해서 본 임시정부 요인들의 생활은 형편없었다.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람들 대부분은 혼자 상해에 왔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유지하고 운영

하는 데 여건이 부족했다. 이때 이 여건을 만들어준 사람이 정정화다. 임시정부 사람치고 그녀의 밥상을 안 먹어본 사람이 없었고 임시정부의 가재도구 중 그녀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었다. 김구도 여기저기 다니다가 배가 출출할 때면, “후동 어머니, 나 밥 좀 해 줄라우?”하면서 찾아오곤 했다.

그녀가 안주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던 중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 상해사변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임시정부는 의열투쟁에 나서게 된다. 이에 격분한 일본은 임시정부 요인들을 상대로 체포령을 내렸고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탈출해 중국 대륙을 떠도는 긴 피난길을 떠났다. 그녀 역시 이 피난길에 있었다. 길고 긴 피난 중에도 그녀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과 그 가족들을 보살폈는데 특히 임시의정원 의원인 엄항섭 일가와 임시정부의 주석인 이동녕을 모시고 살았다. 정정화는 김구의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았으며 임시정부의 기동인 이동녕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다른 방식의 독립운동

1940년, 8년간의 피난길 끝에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다시 항일투쟁의 중심에 섰고 40대가 된 정정화는 한국애국부인회 등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며 임시정부의 중견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 이후 정정화는 임시정부가 만든 삼일유치원에서 자신의 아들처럼 중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이 되었다. 태어나고 조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한글과 한국의 역사를 가르쳤다. 다음은 그녀가 쓴 책 《장강일기》 중 일부이다.

“모국의 산과 들, 모국의 냄새, 모국의 마음을 얘기로만 듣고 자라난 아이들이었다

나는 틈만 나면 독립된 그들의 조국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주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내 나라의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부분 직접 전선에 나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총과 칼을 들고 싸운 사람들을 기억한다. 하지만 정정화는 직접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정성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다. 그녀는 임시정부의 살림을 도맡아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임시정부가 굴러갈 수 있게 해준 임시정부의 어머니이자, 조국의 독립을 가져온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다.

글 - 지연서 수습기자 yeonsoo0127@sungkyul.ac.kr

사진 - 국가보훈처 / [참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가보훈처

걸어서 지역속으로



보성하면 녹차?! 녹차하면 보성?!

국내 차 재배의 최적지이자 녹차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전라남도 보성군, 그 명성에 걸맞게 매년 보성 녹차밭에서는 보성다향대축제가 열리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다시 축제의 장이 열리는 만큼 이번 호에서는 보성군에 대해 알아보자.

#보성은 왜 녹차가 유명할까?

사람들은 국내에서 녹차가 유명한 지역을 생각하면 보성을 떠올린다. 《동국여지승람》과 《세종실록지리지》 기록에 의하면 보성은 예로부터 차나무가 자생해 녹차를 만들어왔다고 한다. 보성은 연평균 기온 13℃와 강수량 1,400mm로 차나무 생육의 최적지이다. 또한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안개에 의한 자연 차광 현상으로 차의 특성이 발현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성녹차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환경친화적으로 재배해 독특한 맛과 향을 지녔으며 세계 우수 수준을 자랑하는 제다 기술로 만들어져 녹차를 좋아하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다.

#축제와 녹차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고?

1985년 국내 최초로 개최된 차 문화 행사인 ‘보성다향대축제’는 올해로 제46회를 맞이한다. 보성다향대축제에서는 보석 같은 차밭 경관을 배경으로 ▲찾았 따기 ▲차 만들기 ▲나만의 차 마시기 ▲녹차 테라피 등 녹차를 테마로 하는 체험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현대인들은 초록의 차밭에서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가진 보성다향대축제는 오는 4월 29일(토)부터 5월

7일(일)까지 9일간 한국차문화공원(보성 녹차밭 일원)에서 진행된다. 또한 축제 첫날인 29일, 15시에는 제2행사장에서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 비행을 선보이는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관람할 수 있다.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는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송가인, 김호중, 영탁, 비비지 등 다양한 초청 가수와 함께 화려한 개막식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보성에 가서 녹차만 먹고 왔다고?!

녹차밭을 보며 먹는 녹차 아이스크림부터 돼지에게 녹차를 먹여 키운 녹차 삼겹살까지, 보성에는 다양한 녹차 음식이 있다. 하지만 보성의 또 다른 특산물인 꼬막이다. 꼬막 하면 생각나는 별교가 바로 이 보성에 있다. 별교 꼬막의 제철은 11월부터이며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아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손색이 없다. 또한 칼슘과 철분도 다량 들어 있어 빈혈 예방과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 보성에 방문한다면 녹차와 별교 꼬막까지 모두 즐겨보는 건 어떨까?

글 - 이현림 수습기자 lks070812@sungkyul.ac.kr

사진 - 대한민국 구석구석, 만개의 레시피

[참조] - 보성문화관광



미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의 각국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기까지, 윗세대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 자기 한 몸 바쳐 우리가 현재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해 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자, 이번 호에서는 그들의 삶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항거
개요 영화
개봉 2019.02.27
출연 배우 고아성, 김새벽, 김예은, 정하담 등

#배경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에서 시작된 만세운동 이후 고향, 충남, 천안, 병천에서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이 붙잡히게 된다. 죄수 번호 371번의 그녀는 3평도 안 되는 서대문 감옥 8호실에 갇혀 얼굴이 통통 부은 채 1년을 보내게 된다.

관순은 수감되자마자 이미 감옥 안이 누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죄수들이 빼곡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한다. 그중에는 같은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던 만석 어머니도 있었다. 만석 어머니는 유관순을 보며 “그깟 독립운동이랑 만세가 뭐였다고 내 아들이 죽었냐!”며 원망한다.

#감감한 어둠 속

관순이 수감 후 몇 시간 뒤, 약속이라도 한 듯 다 같이 걷기 시작한다. 같은 호실의 향화는 “가만히 서 있으면 다리가 붓기 때문에 조금씩 걷는 게 좋다.”며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한참을 걸었을 무렵, 누군가 아리랑을 노래하자 한 두 명씩 따라 부르더니, 이내 8호실의 죄수들이 전부 아리랑을 합창하기에 이른다. 간수가 조용히 하라며 경고하고 나서야 노래 부르기를 멈췄는데, 관순은 이를 보고 “마치 개구리 같다.”고 한다. 이에 향화가 “다 같이 노래 부르다가

도 누가 다가오면 노래를 멈추는 게 꼭 개구리 같다.”고 동조하며 모두 하나 같이 개구리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결국 간수에게 저녁을 굶는 벌을 받게 됐고, 이에 죄수들은 대놓고 다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한다. 기어코 다른 방에도 같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며, 모두가 애국가를 합창하기까지 한다.

#다시 시작된 만세운동

결국 이 사실이 감옥소장까지 보고돼 주동자 색출이 시작된다. 관순은 주동자 색출 작업으로 인해 고문실로 끌려간다. 고문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항거를 멈추지 않았고, 간수장에 의해 벽관 고문까지 받게 된다. 무려 일주일도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고문에 만신창이가 돼 다시 8호실로 돌아온 관순은 같은 호실에서 투옥하는 명애의 출산을 돕는다.

관순의 머릿속엔 ‘독립’밖에 없었다. 그녀는 옥중에서 3.1운동 1주년 만세 운동을 계획했다. 마침내 3월 1일이 찾아왔고, 관순은 기미독립선언서를 암송 후 만세를 부르며 서대문 감옥을 봉기시킨다. 그녀가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자 동료들, 다른 방 죄수들, 남옥사 죄수들이 모두 만세를 부르기 시작한다. 감옥에서의 만세운동 소식

은 저잣거리에 퍼졌고, 이를 들은 조선인들은 일제히 만세 운동에 가담한다. 이후 그녀는 사건의 주동자임이 밝혀진 후 또다시 모진 고문을 받게 된다.



유관순은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면서도 독립을 외치며 몇 번이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옥중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도 애국심을 불러일으켰고, 모두와 함께 독립을 꿈꿨다. 특히 이 영화는 유관순뿐만 아니라 투옥하게 된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을 보여준다. 고문으로 인해 끔찍한 나날이 이어졌음에도 결국 나라를 위해 살았던 이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만석 어머니의 3.1운동으로 인해 죽은 아들의 언급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 관순이 고문을 당한 후 명애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 선조들의 후대를 위한 희생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제목 국제시장
개요 영화
개봉 2014.12.17
출연 배우 황정민, 김윤진 등

#배경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해 함경북도 흥남에 살던 주인공 덕수는 가족들과 함께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선에 탑승했다. 하지만 피난하던 도중 동생 막순이를 놓쳐버렸고, 덕수의 아버지는 덕수에게 가족을 부탁한 후 딸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렇게 덕수는 남은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도착한다. 그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동생을 놓쳐 아버지가 떠났다는 죄책감과 어머니와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만 했다. 이 때문에 부산 국제시장에서 고모의 도움을 받아 친구 달구와 함께 구두닦이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으며, 20대가 된 이후에는 본인의 학업마저 포기한 채 파독 광부에 지원해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게 된다.

#역경과 고난을 겪다

덕수는 광부 생활 중 파독 간호사인 영자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영자와 덕수는 먼 타국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사이가 됐다. 하지만 곧 광산에서 사고가 났고 덕수와 달구는 갱도에 갇히게 된다. 영자 덕분에 둘은 기적적으로 구조되지만, 병원에서 치료받는 도중 비자가 만료돼 귀국해야만 했다.

세월이 흘러 영자가 드디어 귀국하게 된다. 그녀는 부산 국제시장의 ‘꽃분이네’로 찾아왔고, 덕수와 결혼하게 된다. 결혼 후 생활이 안정된 덕수는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선장이 되기 위해 포기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막내 여동생 끝순이의 결혼 자금 문제와 가족의 은인인 꽃분이네 고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 ‘꽃분이네’ 가게를 팔아치우려는 고모부 일이 겹치고 만다.

#가족과의 재회

덕수는 여동생의 결혼과 가게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달구와 함께 베트남 파견 기술자로 지원한다. 귀국 전 허벅지에 총을 맞아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귀국 후 여동생의 결혼과 가게 인수 자금을 모두 마련하게 됐다.

그러던 중 덕수는 우연한 기회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알게 된다. 피난 때 헤어진 동생 막순이와 아버지를 찾고자 프로그램에 나갔고 그 결과 막순이를 찾아낼 수 있었다. 막순이는 미국으로 입양돼 LA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여동생과의 재회는 성공하지만, 끝내 아버지는 찾지 못해 슬픔에 잠기게 된다.

덕수는 늙어서까지 ‘꽃분이네’를 지키며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끝내 자신이 지켜낸 한 가정을 보면서 아버지가 남기고 간 두루마기를 끌어안고,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는다.

이 영화는 한국전쟁 시기 속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한 윗세대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다. 특히 영화 속 할아버지가 된 덕수와 화기에애한 자손들의 모습이 이를 잘 담아낸다. 더불어 아버지가 남기고 간 두루마기는 가족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연상시키며, 가게를 미련 없이 정리하겠다는 의지는 본인 세대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까지, 우리나라의 특수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그야말로 이 시기는 암울했고 황폐했다. 그런데도 나라와 후손들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감사를 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 - 이서연 기자 tjds1596@sungkyul.ac.kr
사진 - 시네 21

K-pop 인기 지표 빌보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음악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다. 음악은 감상하는 방식만 조금 변했을 뿐 늘 우리 곁에서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한다. 음악이 삶과 밀접해지면서 음원 차트는 많은 이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또한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금, '빌보드'는 이제 세계 음악의 인기 척도가 됐다. 이번 호에서는 음악의 지표인 빌보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billboard

빌보드란?

빌 보드는 미국의 음악 잡지로 매주 발표하는 차트는 음악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대중성,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빌 보드는 1894년 11월 1일 윌리엄 도날슨과 제임스 헤네건이 출간한 오락 잡지로 시작했다.

당시의 오락이라 하면 서커스, 박람회, 놀이공원 홍보 등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전부였다. 그러던 중 1900년 도날슨이 빌보드 지분 모두를 인수했고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런던, 파리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다. 여행과 야외 오락 활동에 관한 여러 주제들과 더불어 연예인 사생활에 대

해서 다루기도 했었다. 특히 여기저기 이동하며 다니는 아티스트들에게 팬들의 편지를 대신 받아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다. 이 사업은 인터넷은커녕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시작했지만, 곧 주력 사업이 됐고 돈벌이와 더불어 빌보드와 아티스트들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빌 보드가 음악과 관련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 빌 보드는 전국 레코드 판매점에서 팔린 음반, 라디오 DJ들이 가장 많이 재생한 음악, 사람들이 주크박스에서 즐겨듣는 음악 순위를 차트로 만들어 잡지에 실기 시작했다. 이는 빌보드 차트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936년 1월 4일, 음악 관련 인기 순위표 'Hit parade' 출간을 시작으로 1940년에는 레코드 차트 'Chart line'를, 1958년에는 싱글 음악 순위 빌보드 'Hot 100'을 거쳐 마침내 1963년에는 '빌보드 200'을 발표했다. 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음원을 다운하지 않고 감상할 수 있는 스트리밍이 대중적인 음

악 감상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면서 빌 보드는 2014년부터 스트리밍 성적을 차트 집계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차트의 명칭도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아닌 '가장 인기 있는 앨범'으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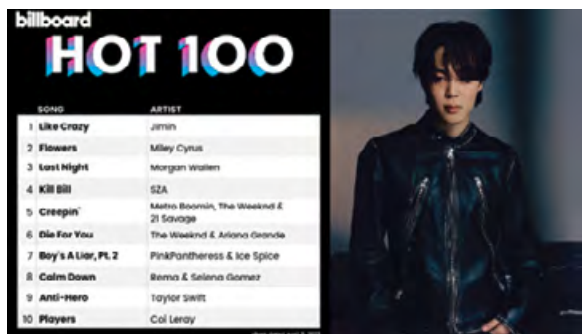
빌보드 1위곡들

빌 보드가 아무리 시대에 발맞춰 변화해 왔다고 해도, 미국 회사이자 미국 시장 위주였기 때문에 지난 125년 동안 빌보드 차트는 영어권 가수들이 독차지해 왔었다. 미국인이 아니었던 ▲비틀즈(The Beatles), ▲퀸(Queen), ▲비 지스(Bee Gees), ▲유투(U2), ▲롤링 스톤즈(The Rolling Stones) 같은 빌보드 '올 타임 레전드'들도 영국이나 아일랜드 호주 등의 영어권 아티스트들이었다. 유럽권이나 스페인어권의 가수들도 영어로 된 노래를 혹은 영어 버전의 노래를 따로 발매하고 나서야 빌보드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

빌보드 'hot 100'에서 1위를 한 대표적인 곡들을 시대별로 나열해보면, 2010년대 상위 다섯 곡은 ▲마크 론슨&브루노

마스(Mark Ronson & Bruno Mars) - 'Uptown Funk!(2015년)' ▲LMFAO - 'Party Rock Anthem(2011년)' ▲에드 시런(Ed Sheeran) - 'Shape of You(2017년)' ▲체인스모커스(The Chainsmokers) - 'Closer(2017년)' ▲마룬 5(Maroon 5) - 'Girls Like You(2018년)'이다.

2020년에는 로디 리치(Roddy Ricch) - 'The Box'가 그해 1위를 11번 차지했고, 2021년 방탄소년단의 'Butter'와 아델(Adele)의 'Easy on Me'가 각각 그해 1위를 10번 차지했다. 2022년에는 해리 스타일스(Harry Styles)의 'As It Was'가 그해 1위를 15번 차지했으며, 이번해인 2023년에는 마일리 사이러스(Miley Cyrus)의 'Flowers'가 1위를 8번 차지했다.



빌보드를 점령한 k-pop

스트리밍이 주류가 되자 음반시장의 국경은 희미해졌다. 또한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뮤직비디오의 파급력은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게 됐다. 사이가 '강남스타일'로 빌보드 'Hot 100'에서 2위를 찍을 수 있었던 것도 뮤직비디오 덕분이다. 압도적인 유튜브 조회 수로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면서 디지털 싱글 판매 1,200만 장을 넘기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다.

이후 케이팝 특유의 완성도 높은 안무와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들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기였던 케이팝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북미, 남미, 유럽 등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아티스트들의 노래가 차트에 오르는 경우도 많아졌다. 블랙핑크, 씨엘이 빌보드에 이름을 올렸지만 가장 활약한 그룹은 단연 방탄소년단이다.

2017년 방탄소년단의 'DNA'가 85위로 빌보드 'Hot 100'에 진입한 이후 67위까지 달성하며 '강남스타일' 신드롬 이후 가장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이후에도 방탄소년단은 ▲스티

브 아오키(Steve Aoki) ▲니키 미나즈(Nicki Minaj) ▲할시(Halsey) ▲시아(Sia) 등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계속해서 차트에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개성이 돋보이는 음악뿐만 아니라 칼군무와 더불어 화려한 뮤직비디오는 케이팝을 하나의 음악 장르로 인정하게 하는 요소가 됐다. 이는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많은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에서 한국어 댓글을 찾아보기 힘든 현재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으로 빌보드 'Hot 100'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음악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더불어 4월 8일 한국 솔로 최초로 방탄소년단 지민의 'Like Crazy'가 빌보드 'Hot 100', 1위를 하면서 케이팝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빌보드

빌 보드는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기 위해 삼성과 협업해 음악 경연대회를 여는 'Samsung NXT'를 2년째 진행 중이며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빌 보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기업이다. 앞으로도 빌 보드는 멈추지 않고 가장 유명한 음악 잡지회사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문화기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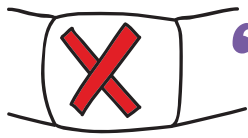
문화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력인 Soft Power가 세계에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이 빌보드뿐만 아니라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필자는 대중의 시선에서 응원하고 있다. 아티스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건강한 팬덤 문화를 통해 문화력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글 - 유진규 수습기자 thanfaktnxj@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빌보드

[참조] 빌보드, 서울경제





‘노 마스크 시대’ 다시 찾은 일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서로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우리의 일상이 됐다. 그러나 지난 3월 20일 정부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명 ‘노 마스크 시대’가 찾아왔다. 이번 호에서는 하나 둘 마스크를 벗으며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노 마스크 시대에 대해 알아보자.

어느 순간 일상이 된 마스크

2020년 2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확진 추세가 빠르게 높아지자 정부는 개인 방역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마스크 품절 현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를 착용하며 생활했다. 호흡과 피부, 귀 당김 등 다양한 불편함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이 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코로나 확진 추세가 점차 가라앉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자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2년 4월 전면 해제했다. 사람들은 이에 따른 마스크 착용 규정에 대한 변화에도 관심을 가졌고, 2022년 5월 사람들이 밀집하는 스포츠 경기 등 일부를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 재유행 감소세가 확인해지자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다.

그리고 지난 1월 30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드디어 해제됐다. 그러나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은 제외돼 대중교통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를 원하는 여론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자율적 마스크 착용이 비교적 잘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20일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의료시설과 감염 취약 시설은 제한됐지만 사실상 ‘노 마스크 시대’가 됐다.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1개월 만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2년 5개월 만이다.



노 마스크 시대의 변화

우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나뉠 만큼 코로나로 인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집에서만 즐길 수 있는 OTT와 배달 및 비대면 업종은 눈에 띄게 성장했고 여행 및 공연 관련 업종은 매우 큰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노 마스크 시대에 들어선 지금,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위축됐던 여행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3월 발간된 항공권의 판매액은 1,613억 원으로 올 1월에 달성한 최고 판매치인 1,475억 원을 두 달 만에 경신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81%,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월 대비 48%가 증가한 수치다.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패션, 뷰티 업계도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마켓은 전년 동기보다 관

련 매출이 15%, 티몬은 50%가량 증가했으며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의 3월(1~19일) 거래액은 전년 동기보다 110% 증가했다.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롯데백화점의 3월(1~23일) 패션 관련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5%가량 늘었다.

반면, 코로나 수혜를 받았던 업종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달 업계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을 제외하고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그간 증가한 배달료는 더 이상 소비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또 다른 수혜를 받던 OTT 업계는 가입자 수 정체에 빠졌다. 사람들의 야외 활동과 다양한 콘텐츠의 흥행 실패, 더불어 구독료 인상은 소비자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다시 찾은 우리의 일상

사실상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 이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따뜻해진 날씨에 벚꽃은 우리에게 축하 인사라도 하듯 평년보다 빠르게 개화했고 이에 따라 많은 인파가 몰렸다. 4년 만에 전면 개방된 벚꽃 명소인 석촌호수의 지난 3월 27~4월 9일 주변 방문객은 총 233만 명으로 집계됐고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도에 비해 100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억눌렸던 우리들

의 일상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노 마스크 시대가 시작된 만큼 평범함이라는 우리의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길 바란다.

글 - 박제현 부편집장 zzcjftjdz@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송파구청

[참조] 연합뉴스, 뉴시스,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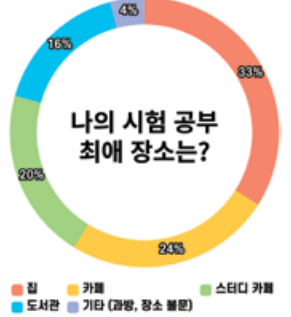
성결인의 시험기간!

이번 395호에서는 2023년 1학기 첫 중간고사를 맞이해 성결인들의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70명의 성결인들의 시험 대비 방법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결과를 확인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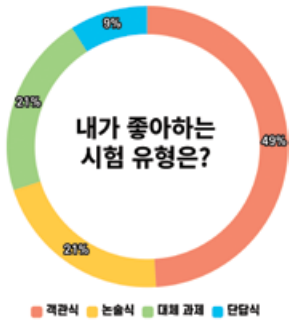
나의 시험 공부 기간은?	응답인원	응답비율
시험 기간의 정석은 2주	24	34%
아직 늦지 않은 1주	23	33%
벼락치기 스타일 시험 전 날	19	27%
공부하지 않는다	2	3%
넉넉하게 한 달	1	2%
시험 기간은 따로 없다 매주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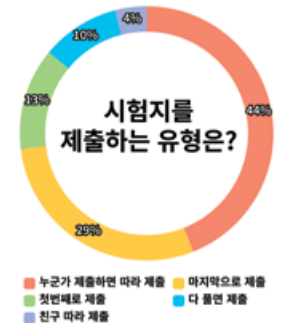
나의 시험 공부 최애 장소는?	응답인원	응답비율
집	23	33%
카페	17	24%
스터디 카페	14	20%
도서관	11	16%
기타 (과방, 장소불문)	5	7%



내가 좋아하는 시험 유형은?	응답인원	응답비율
찍어도 좋다. 객관식	34	49%
뭐라도 써보자. 논술식	15	21%
시험이 뭐예요? 과제 제출	15	21%
답은 정해져있다. 단답식	6	9%



시험지를 제출하는 유형은?	응답인원	응답비율
눈치보다 누군가 제출하면 따라 제출하는 유형	31	44%
교수님 수고하십시오! 마지막으 로 문 닫는 유형	20	29%
내가 금메달! 첫번째로 제출하는 유형	9	13%
마이웨이~ 내가 시험을 다 보면 제출하는 유형	7	10%
친구가 같이! 친구가 제출하면 같이 제출하는 유형	3	4%



#나만의 특별한 공부법

♣ 수박 겉핥기 공부법

모르는 건 끝만 훑는다

- 남기표(도디 17)

♣ 올림픽 공부법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둔다

- 김지한(국개협 18)

♣ 손병호 공부법

공부 내용을 하나씩 접어가기 공부한다

- 장하늘(유교 22)

♣ 다이어트 공부법

내일부터 시작하기

- 송재휘(영문 21)

글 - 김근형 수습기자 hanangun@sungkyul.ac.kr

자랑스러운 성결인



하제영

현 안양시청소속 육상선수

1. 어떤 과정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나?

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회에 나가 풀들을 했을 때도 나는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더 올라갈 수 있음에 감사했고 나 자신을 믿었다. 나는 재능보다 노력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아직 젊고 어리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성공할 날이 올 거라 당연한 듯 생각했다.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했고 육상을 진심으로 대하며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 대한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

2. 어려운 시기는 없었나? 어떻게 이겨냈나?

운동선수다 보니 부상이 왔을 때 힘들었다. 부상이 생기니 자존감이 떨어지고 인간관계도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멘탈관리를 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레 극복됐다.

3. 성결대학교에 와서 어떤 점이 제일 좋았나?

면학장학금이나 성적장학금, 성적유지장학금 등 잘 알아보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제도가 많다는 것과 교내 축제나 동아리박람회 등 학교행사에서 다양한 경품과 학생들이 축제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공강 시간에 밥을 먹을 때 교내 학식이 맛있어서 친구들과 밖에 나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자주 먹었던 점이 편하고 좋았다.

4. 학생 시절 가장 생각나는 활동이나 일은?

대학에 와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단연 치어리딩 동아리인 폐가수스 단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학교를 대표해 치어리딩 대회에 나가 대상을 받았고, 그 과정을 함께한 폐가수스 단원들과의 추억이 무수히 많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다른 과 친구들과도 가까워지고 덕분에 학교를 바라보는 애정과 시야가 넓어졌다. 대학생 시절의 나를 되돌아봤을 때 내 청춘을 제대로 즐겼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5. 체육교육과 지원을 생각하는 입시생들과 재학생들에게 한 마디

교수님들께서 항상 학생들 잘 챙겨주시고, 과 동기나 선·후배들과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를 학생회에서 주최해 준다. 과 동아리 활동도 많아 여러 운동을 학교 내에서 즐겁게 배울 수 있다. 가장 큰 건 교원자격증 기준에 부합된다면 100%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꿈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일반 체육교육과가 아닌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이기 때문에 임용고시에 합격했을 때 호봉을 더 높게 시작할 수 있다.

임용고시 준비생이라면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을 저학년 때 미리 취득해 놓으면 좋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공부량이 늘어나고 임용고시 실기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저학년 때 미리 준비해 놓으면 편하다.

6.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부상 없이 꾸준히 운동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더 나아가 대학원 졸업 후 학문적으로 지식을 쌓아 대한육상연맹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

글 - 박제현 부편집장 zccjftjdz@sungkyul.ac.kr

사진 - 본인 제공

기자칼럼



이서연 기자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실태>에 따르면 2047년에 전국 229개의 지역이 쇠퇴 위험에 빠지며, 2067년에는 전국 216개의 지역이 소멸 '고위험' 단계가 된다고 밝혔다. 즉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 빠진다는 것이다.

'지방소멸', 말 그대로 지방이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한편, 지방민들조차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 이처럼 한 지역의 인구가 감소된다면 기초 정주여건 미비로 인한 인구 유출 가속화와 악순환이 초래돼 결국 지역이 불균형으로 발전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더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부동산 물가 상승, 주차장 부족 등의 국토 이용 효율성 하락 등의 문제점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지방민 41%는 수도권으

로 이주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열악한 일자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문화, 휴식시설의 부족이 그 뒤를 이었다. '일자리와 문화, 휴식시설의 부족'은 포함 약 68%라는 높은 결과를 보였고 한 전문가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 메가시티, 행정구역 등을 만들기보다는 교육, 문화, 취업 등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자리와 문화, 휴식시설이라는 인프라 구축이 지방소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방소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귀농 귀촌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지역만의 산업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자치의 실현도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도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행해 결국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시대'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재정자립도는 약 10%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이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폭 이양한다면 지방정부가 독립적으

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간섭이 과연 없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업무 이양을 점차 늘려 결국에는 전면 이양을 하는 등 지방정부가 주도성을 갖추도록 뒷받침해 줘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현재 시행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더욱 늘려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있더라도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으면 그 지역의 매력도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무조건적인 재개발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 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편을 개선해야 하며 쉬는 날에는 즐길 문화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인프라 구축 후에는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지방소멸은 정부의 오래된 숙제이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래 많은 예산 투입이 있었지만, 결국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러므로 지방소멸에 관한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분석하고 벤치마킹을 시도해 우리나라만의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글 - 이서연 기자 tjds1596@sungkyul.ac.kr

체험에세이

다가올 이별을 느끼는 요즘



정예슬 기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과 함께 신발장에 발을 내딛을 때마다 항상 꼬리를 흔들며 필자를 반겨주는 '두슬이'. 9년 전, 중학교 1학년 때 데려온 우리 집의 강아지다.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던 필자는 그 시절에 외로움을 많이 났다. 방과 후에 혼자 있는 것이 공허해 부모님의 친구 댁에 놀러 가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냈던 필자는 반년 이상 부모님께 "강아지를 키우게 해 주세요."라며 오랜 기간 동안 부탁했다.

평소와 같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간 어느 날, 우리 집 거실에는 하얀 털과 까만 콩 같은 눈을 가진 강아지가 어색한 듯 필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매일같이 놀러 가던 부모님의 친구 댁에서 강아지를 입양받아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그날 새벽,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슬자 돌림을 사용해 '두슬'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2014년 6월, 새로운 가족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생긴 소중한 날이다.

두슬이를 입양하고 배변 훈련, 산책, 목욕까지 처음으로 함께 한 순간을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 목줄을 매고 처음 바깥으로 산책을 나간 날, 소심하고 겁이 많은 두슬이는 길바닥에 엎드려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다. 이주 내내 이를 반복했을까? 매일을 시도했던 산책은 어느 순간부터 걷기 시작하더니 밝은 표정을 지으며 필자를 향해 달려오기도 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익숙해지며 학교에서 돌아와 소파에 같이 누워 하루 종일 낮잠을 자기도 하고, 어느 날은 돌이 놀다 지쳐 맨바닥에서 기절하듯 잠들기도 했다.

부모님이 여행을 가신 새벽, 필자는 언니와 거실에서 야식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두슬이가 헉헉거리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시작했고, 다리를 떨며 걷기도 어려워 보였다. 우리는 그 상황이 두려워 눈물만 흘리며 두슬이의 이름 두 글자만 외칠 뿐이었다. 그때, 24시간 동물의료센터가 머리를 스쳐 급하게 택시를 부르고 병원으로 향했다. 체감 2시간 같던 20분쯤을 기다렸을까? 두슬이는 여러 검사를 받고 나왔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으나 기관지염일 수도 있으니 약을 잘

챙겨먹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필자는 아직도 두슬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때의 무서움을 잊지 못한다.

10년째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요즘, 두슬이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 시작했다. 배변판을 옆에 두고도 거실 바닥, 화장실 앞 등 곳곳에 대소변을 보곤 한다. 또한 기력이 약해진 탓인지, 산책을 나가도 몇 분 건다가 안아달라고 킁킁대곤 한다. 병원에 가봐도 의사는 "늙어서 치매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라는 말을 반복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영원히 모든 순간을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필자는 두슬이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느끼고 있는 중이다. 23살이 된 지금, 인생의 절반을 넘게 함께한 가족이자 친구인 두슬이가 곁을 떠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는다. 잠깐의 귀찮음 때문에 산책을 뛰어넘은 날도, 피곤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지 않았던 날도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 계속 떠오른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고 예뻐해 주고 싶다.

글 - 정예슬 기자 jys020907@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대신 복수해드립니다.

사회의 부조리는 미디어 속 단골 소재이며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게 가장 빈번하게 다뤄진다. 주로 주인공이 사회의 부조리를 겪고 힘들어하다 끝내 악당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시청자들이 통쾌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다' 장면이다. 최근 종영한 <모범택시>는 '전화 한 통이면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대행해주는 택시회사'라는 설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악당들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응징하고 복수해주는 이야기이다. <모범택시>에서 다루는 사회의 부조리는 동떨어진 이야기보다는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학교폭력, 장애인 강제 노동, 회사의 갑질 등의 범죄는 나 또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지인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일상적인 범죄들이다. 그렇기에 더욱 소재에 공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상의 부조리를 자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

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시청자들이 <모범택시>에 환호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법이 아닌 폭력적인 방법으로 악당들을 처리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그들에게 내려지길 바라는 정도의 처벌이기 때문이다. 범죄와 가해자들이 일상에 만연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들이 기대하던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을 때 느꼈던 분노와 허탈함이 드라마 속 '무지개 운수'를 통해 해소됐기 때문이다. 즉, 드라마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드라마가 후반부를 향해 갈수록 2회 안에 사건이 벌어지고 해결되는 빠른 전개 대신, 큰 하나의 사건과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복잡해지고 사건의 규모도 커졌다. 단순한 전개 구조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성찰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확장됐고 이는 일상의 부조리를 해결하던 주인공이 사법정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며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어쩌면 이 드라

마를 시청하면서 악당들이 주인공의 활약으로 적절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원래의 삶으로 복귀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결말을 은연중에 원했는지 모른다. 이러한 전개가 결국 우리 사회는 아직 살만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들은 종종 정치나 사회 제도에 잘못을 꼬집어 우리가 통찰해볼 수 있게 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 부조리를 다루곤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어쩌면 모르고 넘어갔을 불합리한 것들을 다루주는 생활 밀착형 드라마 역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현실에서 <모범택시> 속 등장인물들처럼 복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해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

글 - 박미경 편집장 qkralrud0827@sungkyul.ac.kr

ChatGPT를 써보니



김희선 교수

영어영문학과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어디서나 ChatGPT에 관한 정보와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필자는 원래 호기심이 많고 실험정신이 좀 있는 편인지라 즉시 ChatGPT를 실행해보았다. 'Introducing ChatGPT-OpenAI'라는 사이트로 접속하면 간단한 회원가입을 거쳐 무료 버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첫 화면 'Try ChatGPT'로 표시된 곳을 클릭하면 맨 하단에 "Send a message"라는 창이 뜨는데, 그곳에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몇 초 안에 능숙하게 답을 써준다. 영어로 "김희선에 관한 영시를 한편 창작해 보라"고 하면서 간단한 키워드 몇 개를 제시하였더니, 그야말로 몇 초 만에 운율까지 완벽하게 맞추어 청산유수 아름다운 어휘들로 영시를 써준다. 'Regenerate'(다시 생성하라)를 누르면 몇 번이고 새로운 시를 다시 써주면서, 친절하게도 이번 것이 "더 좋은지, 나쁜지"를 물어보기도 한다. 소넷(Sonnet) 형식으로 다시 써보라고 하면, 소넷 형식에 대해 이미 완벽히 알고 있는 AI가 14행의 셰익스

피어식 소넷 형식과 운율을 지닌 시로 순식간에 써준다. 첫 4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Hee Sun Kim, English professor rare,/ Whose brilliance doth illuminate,/ The hearts and minds of all who dare,/ To seek the knowledge she doth create."

이번에는 키워드를 몇 개 준 후 아무개 교수에게 이메일을 써보라고 하였더니, 시키지도 않은 계절 인사부터 시작하여 정중하고 깎듯하게 적절한 길이로 주요 정보를 모두 포함한 편지를 재빨리 써준다. 영어로 쓴 글을 준 후 문법적 오류를 수정해 달라거나,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바꾸어 다시 써달라는 등의 일은 ChatGPT에게는 쉬운 즉 먹기이다. 한마디로, 시킨 일을 빛의 속도로 해치우는 똑똑한 비서이다. 창작도 아주 잘하여 몇 가지 상황 제시를 하고 반전이 있는 코믹 스토리를 써보라고 하면 다소 어색할 때도 있지만 글을 잘 꾸며내어 완성한다. 이렇듯 ChatGPT만 있으면 시간이 드는 일을 빨리 해치울 수도, 심심할 때 함께 놀 수도 있다.

물론 ChatGPT는 기존의 인터넷 자료를 종합하여 글을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간혹 거짓 진술을 할 때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말할 때도 있다. 가령 "세종대왕이 인왕산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다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보면, "세종대왕이 사냥을 하다 호랑이에게 공격당해 다리를

물렸고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 완쾌하였지만, 그 사건은 그 후 세종대왕의 건강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그럴듯하게 답한다. 이렇듯 ChatGPT는 거짓 정보도 그럴듯하게 꾸며내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 한마디로 ChatGPT는 말 재주꾼이라 할 수 있고 명령어만 잘 내리면 일을 곧잘 수행하지만, 거짓 정보인지 아닌지 더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Talk-to-ChatGPT"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ChatGPT에 결합시키면 말로만 해도 잘 알아듣고 글로 쓰고 읽어준다. 말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역할놀이를 하는 영어 학습에도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ChatGPT 4.0이 적용된 New Being에서는 단순히 글만 읽고 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도 보고 분석할 줄 알며, 질문을 하면 footnote를 통해 출처까지 알려주어 구체적인 정보검색을 겸할 수 있다. 여기까진 필자가 사용하여 확인해본 바로, 잘만 활용하면 꽤 쓸모가 있다. 아직 사용을 해보진 않았으나 확장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정보만 입력하면 순식간에 엑셀표나 PPT 혹은 동영상으로도 변환 가능한 정도라고 하니, 이제 몇 시간 혹은 며칠씩 시간이 드는 수고를 이런 AI 비서들이 순식간에 대신 해주는 시대가 온 것이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제출하는 과제도 믿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카피킬러로는 도저히 알 수 없으니 새로운 표절 방지기능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은 개인정보 유출, 윤리적 문제, 등 보완될 사항도 많다.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ChatGPT를 사용해 본 적 있는지 손을 들어보라고 하였다. 예상외로 대부분 들어는 보았어도 막상 사용한 예는 극히 드물었다. 필자가 교실에서 컴퓨터를 켜서 직접 ChatGPT 활용의 예를 시연하여 보여주었더니, 모두 신기하고 놀라워했다.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은 AI의 발달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해가는 상황을 심히 우려하기도 하였다. 필자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처음 구글 검색이 세상에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인터넷 검색이 우리의 뇌를 퇴화시켜서 바보로 만들어 줄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사람들은 더 똑똑해졌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학생들이 경쟁의 장인 사회에 나가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능력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말이다. 뇌과학자인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는 "ChatGPT로 인해 교수, 작가, 언론인 같은 직업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ChatGPT를 잘 쓰는 사람은 이를 활용한 압도적인 생산성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에 설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통해 새로운 효율성으로 뇌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만큼 우리의 능력도 확장되기 때문이다.

신임교수님들 소개합니다!



- 이름 김경배
- 학과/전공분야 관광개발학과/ 관광학
- 최종학위(학교명, 학위명)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Tourism Management, Ph.D.
- 나의 인생모토 Be the Miracle! - 영화 <브루스 올마יתי> 속 대사
- 전하고 싶은 한마디 성결대학교의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주역이 될 관광개발 학과의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름 송효진
- 학과/전공분야 행정학과/ 행정학
- 최종학위(학교명, 학위명)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 나의 인생모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 전하고 싶은 한마디 성결대 학생들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반짝일지 벌써부터 기대되고, 무척 설렙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보며 말하고, 한 발 한 발 맞추어 건넌습니다.



- 이름 송예진
- 학과/전공분야 영화영상학과/ 영화실기(영화연출)
- 최종학위(학교명, 학위명) 한양대학교대학원 M.F.A. 연극영화학 실기박사 수료
- 나의 인생모토 그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 역올한 일, 슬픈 일 그림에도 불구하고!
- 전하고 싶은 한마디 잊히지 않을 것 같은 무더운 여름 뒤편 가을도 온다 분명히. - 영화 <500일의 썸머> 속 대사



- 이름 김기윤
- 학과/전공분야 융합학부 차세대미디어/ 텔레커뮤니케이션(디지털미디어)
- 최종학위(학교명, 학위명)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 나의 인생모토 나에게 제일 비판적이되 나를 제일 사랑하자.
- 전하고 싶은 한마디 여러분의 반짝이는 미래에 대해 함께 꿈꾸고 상상하고 만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반짝일 수 있도록 빛을 보내줄게요. 밀레니얼-Z세대, 실감(實感)해 보아요!~



- 이름 이신영
- 학과/전공분야 파이데이아 학부/ 문화예술
- 최종학위(학교명, 학위명) 동국대학교 문학박사
- 나의 인생모토 에벤에셀(Ebenezer)
- 전하고 싶은 한마디 문화예술을 통해 성결대학교 학생들의 학창 생활이 보다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 이름 조성범
- 학과/전공분야 사범대학 교직부/ 교육행정
- 최종학위(학교명, 학위명)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 나의 인생모토 배워서 나 주자! - 학생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육자
- 전하고 싶은 한마디 도전이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래의 나를 만나 가는 과정입니다. 대학 생활 동안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시길 응원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혁신지원센터

 세상과 같이하는 가치로운 성결의 힘!
 성결대학교
 SUNGKYUL UNIVERSITY

2023

핵심역량 진단



참여하기

기록교적·인성·역량

소통·협력·역량

세계시민·역량

창의·융합·역량

 2023.02.28.^{TUE} - 2023.12.29.^{FRI}

■ 조사대상

성결대학교 전체 재학생 (* 전학년)

■ 조사기간

2023.02.28.(화) - 12.29.(금)

■ 참여혜택

- 나의 핵심역량 점수 확인
- 강점 역량, 취약 역량, 역량 향상도 파악
- 취약 핵심역량 보완 비교과 프로그램 추천
- S-포인트 0.1점

■ 참여방법

- 통합역량개발시스템 로그인
- [핵심역량진단] 메뉴 클릭
- 검사실시

■ 이벤트

04.14.(금)까지 진단에 참여한 전체 재학생 중
추첨을 통해 229명 대상으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지급

■ 문의

교육혁신지원센터(031-467-8451, 8442)